

‘현관문 철근 설치’ 아파트 갈등 심화

광주시내 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시공사가 일부 세대의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입주자를 막는 등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6일 광주 한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시공사는 지난 7일 입주예정자 4세대에 대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업무 일체를 위임받은 시공사는 입주지원센터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세대의 현관문 열쇠를 회수했다.

또 시공사는 지난 14일 해당 세대의 현관문에 철근을 설치해 입주예정자들의 출입을 막았으며, 실내에 설치돼 있던 전기·수도·통신 설비 등을 해제했다.

앞서 지난 7월 입주예정자 사전 점검 과정에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시공사 측의 무단설계변경·부실시공 등을 문제삼아 지난달 말 구청의 사용승인이 보류됐다.

지난 3일 구청의 중재로 시공사 측이 키즈스테이션 설치·조정시설물 추가 설치 등에 입주예정자 요구안에 대해 합의했고 합의 다음날 아파트 사용에 대한 구청의 승인이 됐다.

이후 시공사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입주를 놓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다시 불거졌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한 입주예정자는 “시공사가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불법으로 시공한 사실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였을 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시공사 측은 오히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일부 입주예정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3일 합의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들에게 대해 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금 등을 모두 냈지만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주지 않았다. 잔금까지 차를 만큼 사유재산이라고 생각해 도어락을 설치해 입주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불법단체를 조직, 시공사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했다”면서 “이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침해해 계약파기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또 “입주증 수령과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주예정자가 무단으로 도어락을 설치했다.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다른 세대에도 시설물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출입문

일부 입주예정자 계약해지 후 설치

입주예정자 “정당한 지적에 보복”

시공사 “근거없는 편협·권익침해”

폐쇄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해당 입주예정자들과 오는

17일 협의를 진행하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입주예정자가 분양금 반환을 요청하면 즉시 반환할 계획이다. 위약금 등 배상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입주예정자들은 시공사를 무단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은홍 기자



추석 앞둔 황금들판

추석을 앞둔 16일 가을의 색으로 물든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의 황금들판 풍경에서 깊어가는 가을을 느낄 수 있다.

광주·전남 구급대원 폭행 5년새 38건...42% ‘벌금형’

“엄격한 법 집행으로 구급대원 안전 확보해야”

광주·전남에서 최근 5년새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3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벌금형에 그쳐 구급대원의 안전을 확보할 엄격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소방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제출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 현황’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광주에서는 14건, 전남에서는 23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광주·전남 통틀어 2014년 7건, 2015년 16건, 2016년 5건, 2017년 7건, 올 상반기 2건이다.

그러나 폭행사범 가운데 상당수는 단순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이후 처분된 38건 가운데 벌금형은 16건으로 42.1%에 달했다. 집행유예에 포함 징역형은 10건으로 26.3%를 차지했다. 솥방망이 처벌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이밖에 기소

유예 2건, 기타 2건에 한해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례만 8건에 이른다.

이 의원은 “얼마 전 폭행 직후 안타깝게 순직한 구급대원의 사례에서 보듯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육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구급대원 폭행사범은 보다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구급대원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어 장비를 구비할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과 정책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 모 고교 성비위 교사 16명→19명

경찰이 광주 모 고교의 성비위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해 교사가 당초 16명에서 19명으로 늘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6일 피해 학생들을 전수조사한 광주시교육청이 가해 교사로 지목한 16명보다 3명이

많은 19명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가로 지목된 가해 교사들은 학생들의 피해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한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의 진술과 잇

달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가로 지목된 가해 교사 3명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학교 측은 이들을 수업에서 배제했으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무안 육군부대에서 병사 숨진 채 발견

육군 모 부대에서 근무 중이던 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군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40분께 무안군 한 육군 부대 내 생활관 건물 인근에서 A(20) 일병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A 일병은 총기를 소지하지 않는 불침번 근무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부대 지휘관과 동료 병사를 상대로 가혹행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무안=이기성 기자

창고 지붕에 머리 부딪힌 경운기 운전자 숨져

16일 오전 8시50분께 여주시 들산을 한 주택 인근에서 경운기를 몰던 A(85) 씨가 창고 지붕에 머리를 부딪혀 숨졌다.

경찰은 A 씨의 경운기가 주택 옆 창고로 진입하던 중 이 같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송기홍 기자

보성서 차량 2대 충돌...5명 부상

15일 오후 6시57분께 보성군 조성면 한 휴게소 앞 도로에서 RV차량과 승용차량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보성=안구일 기자

여고생 성폭행 뒤 방치 10대 2명 영장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고교생 A(17) 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군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께부터 오전 4시15분께 사이 영광군 한 숙박업소에서 B(16)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전에 ‘술 마시기 게임’을 한 뒤 B 양을 성폭행을 하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텔에 투숙한 뒤 실제 게임을 하며 B 양에게 많은 양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이 쓰러지자 이들은 차례로 성폭행 한 뒤 모텔을 빠져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B 양은 같은날 오후 4시께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숨진 사실은 몰랐다. 오전 4시 이후 숙박업소를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밀 부검을 통해 B 양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힐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차량서 금품 훔쳐 명품옷 구입 10대 등 2명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차량에 보관 중이던 추석 명절 상여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고등학생 A(16)군과 대학생 B(20)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주차된 C(53) 씨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105만원과 블랙박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새벽시간에 아파트와 이면도로를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물색했으며,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블랙박스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줄 추석 상여금을 차량에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훔친 돈으로 명품 옷을 구입, 자신들이 입거나 친구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조사됐다.

조인호 기자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융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경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해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